

# 한국형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울촌1산단 유치 나서

순천-고흥 나로우주센터-사천 연결 최적후보지  
교통, 교육, 문화 등 조립장 직원 정주여건 좋아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울촌산단협의회(회장 정오용)가 울촌1산단에 한국형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를 나선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단조립장 설립을 위한 예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울촌1산단을 선정한 바 있어 순천시와 상공인, 울촌산단협의회가 적극적인 유치가 나서기로 약속했다.

1일 울촌산단협의회에 따르면 울촌1산단 내 예정 부지는 2012년 준공인가대 기반 시설이 완비됐으며 즉시 부지매입과 입주가 가능한 상태다 단조립장 설립 계획 일정 내 차질없이 착공이 가능한 준비된 생산시설 부지다.

기반 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땅값이 1㎡당 12만원(평당 40여만 원)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전력, 용수공급이 충분하고 인근 산단 개발에 따른 관련 기업 입주로 인프라 확장이 가능해 추후 우주항공산

업 배후 클러스터 조성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나로우주센터 접근성과 연관 산업 인프라도 이번 단조립장 설립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울촌1산단이 위치한 순천시는 나로우주센터와 사천을 잇는 삼각편대이자, 현대제철, 포스코, 조경량 마그네슘 생산시설 등 연관 산업체와 다수의 R&D 기관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이자 교육·쇼핑·편의시설이 풍부해 직장·주거·힐링 여가가 가능한 '직주락(Work, Live, Play 樂)' 도시인 만큼, 직원들의 정주여건까지 고려한다면 순천시가 가장 최적의 후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양만권 내 우주항공 연관 사업이 집중되고 순천시는 전통적인 교육도시인 만큼 미래 첨단 인재가 확보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는 백년대계를 함께 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울촌1산단에 순천상회의와 울촌산단협의회 등과 함께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가 나선다. 순천시 제공

주민과 기업, 대학과 지방정부가 염원하는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해안벨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역 균형발전과 민간주도의 기회특구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유관 단체들이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망을 담아

순천시에 유치를 건의해 각종 인허가 처리 단축 및 행정·재정적 지원, 정주여건 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의뢰한 용역 조건에 부합된 현장평가 대비 등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민원장구 '일사천리 순천' 호응  
순천시, 카카오톡 채널

순천시 '카카오톡 채널' 생활민원 접수·처리가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순천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소통 앱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사천리 순천'이 개설 이후 두 달 만에 270건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순천시민 누구나 카톡 채널에서 '일사천리 순천'을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면 이용 가능하다.

관리자와 1대1 대화를 통해 도로 파손과 가로등 고장 등의 생활안전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 곧바로 전달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광양시, 10일 마감

광양시는 오는 10일까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들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5명이며 신청 대상 기업은 광양시에 소재하고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1~4년 차 청년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1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투자일자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업과 청년에게 연차별로 취업장려금(1년차), 고용유지금(2년차), 근속장려금(3년차), 장기근속금(4년차)이 지급되며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청년 1500만원·기업 500만원)이 지급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매시러운 시민클럽 공모  
광양문화도시센터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오는 5일까지 시민들의 이야기 모임 '매시러운 시민클럽' 1기 10개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시러운 시민클럽'은 광양시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를 매개로 한 시민들의 일상 속 동행과 교류의 실천에 주목한다.

'매시럽다'란 '손끝이 야무지고 하는 일이 깔끔하다'라는 뜻의 방언으로 '매시러운 시민클럽'은 '청소년 활동 모임', '반려생활' 등 취향을 기반으로 한 3인 이상의 시민 이야기 모임이라면 어떤 팀이든 신청 가능하다.

1기에서는 10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 기준은 동행력, 문제 해결력, 활동의 구체성 등이다.

선정된 팀에는 활동 회의비(회당 10만원·팀별 5~7회 활동)를 지원하고 활동이 종료되면 '시민클럽데이'를 통해 활동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일 까지며 서류 심사를 거쳐 8일 최종 선정팀이 발표될 예정이다. 광양시청, 광양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이메일(gycc2022@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박시훈 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일상에서 자발적인 동행과 교류를 응원하는 '매시러운 시민클럽'을 통해 광양시 시민 간 교역력이 확대·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희망도서관이 도서관 꿈나무극장에서 2월 문화가 있는 날 '희망문화놀이터' 행사로 과학 마술쇼 '더 사이언스'를 공연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 인재양성 집중투자 명품 교육도시 육성

12개분야 44개 사업 71억 투입

광양시가 12개 분야 44개 프로그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1억원을 투입,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3년 교육분야 투자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 나선다.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보다 2억4000만원 증가한 71억원을 편성해 지역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87개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과 창의 융합 인재 육성, 특기 적성 개발, 인성 함양, 글로벌 인재 육성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양시는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개정 교육 방향에 발맞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소규모 학생 및 교사 수급 곤란 등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와 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진로 진학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광양교육지원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7000만원을 투입해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을 다양화하고 초·중·고 학교마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5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는 누구나 평등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 광양센터가 이번 달 문을 열어 초·중·고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상담과 진로설계, 직업교육 등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급단가를 인상해 1인당 31만4000원을 지원하며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도 학년과

관계없이 교복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교육복지 보편화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과 백운장학사업도 확대한다.

광양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광양시는 신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등 학생 유입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운장학사업은 지역인재 육성과 취약계층의 폭넓은 기회 제공을 위해 매해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광양시 출연금으로 238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4500만원 늘어난 3억5000만원으로 다자녀 장학금과 저소득 우수 학생 가계 지원 격려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정한 학습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 매곡동 탐매화 축제  
시, 4일 희망센터 일원



순천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흥매화가 피는 매곡동 탐매마을에 흥매화가 만발한 가운데 3월 4일 제5회 매곡동 탐매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일원에서 '흥매향 정원으로 있다' 주제로 4일 오전 10시부터 '매곡동 탐매축제'가 열린다.

흥매화를 테마로 흥매화 포토존, 흥매화 페이스페인팅, 흥매실차 시음, 흥매화 거리공연, 매실 탕후루츠·마카롱·가나슈 롤리팝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풍선 및 팝콘, 솜사탕을 무료로 나누는 등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초청 가수 공연, 국악 공연, 댄스 공연, 매실 인형극 공연 등 공연도 준비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순천=배서준 기자

**매시러운 시민클럽**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오는 5일까지 시민들의 이야기 모임 '매시러운 시민클럽' 1기 10개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시러운 시민클럽'은 광양시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를 매개로 한 시민들의 일상 속 동행과 교류의 실천에 주목한다.

'매시럽다'란 '손끝이 야무지고 하는 일이 깔끔하다'라는 뜻의 방언으로 '매시러운 시민클럽'은 '청소년 활동 모임', '반려생활' 등 취향을 기반으로 한 3인 이상의 시민 이야기 모임이라면 어떤 팀이든 신청 가능하다.

1기에서는 10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 기준은 동행력, 문제 해결력, 활동의 구체성 등이다.

선정된 팀에는 활동 회의비(회당 10만원·팀별 5~7회 활동)를 지원하고 활동이 종료되면 '시민클럽데이'를 통해 활동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일 까지며 서류 심사를 거쳐 8일 최종 선정팀이 발표될 예정이다. 광양시청, 광양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이메일(gycc2022@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박시훈 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일상에서 자발적인 동행과 교류를 응원하는 '매시러운 시민클럽'을 통해 광양시 시민 간 교역력이 확대·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